

(재)경기아트센터 - 경기도극단 < 2023년 창작희곡 공모전>

당선작 심사평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처음 진행된 <창작희곡 공모전>에 이어 2023년 두 번째를 맞이한 <창작희곡 공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는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삶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화와 연극의 꽃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을 향한 무대는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깊어져야만 합니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이 모집하는 두 번째 희곡공모 - 희곡부터 공연까지 <2023년 창작희곡 공모전>에 지원해 주신 모든 작가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미래와 현재에 대한 시선,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을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한 귀한 작품들을 보내주셨고, 총 159편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연극 장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극작가의 창작여건 마련과 우수 창작희곡 작품의 발견 및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창작극 활성화에 작가님들 모두 함께 발맞추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응모 접수된 159편의 희곡을 1차(예심)와 2차(본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예심)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전원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작의/시놉시스/대본을 바탕으로 블라인드로 1월과 2월 기간 동안 개별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10편의 작품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작품명, 가나다 순)

- 당신이 오랫동안 악몽을 들여다보면
- 비엔나 왈츠
- 쌍팔년 잔혹사
- 에덴머신
-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옥수수를 심었고
- 우상향
- 잔이 비워지면 셋 중 둘이 죽으리라
- 좀비 호러 뽕쇼
- 죽음들
- 환, 결별 환상곡

1차(예심)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2차(본심) 심사를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심사위원간의 자유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최종 2편이 거론되었습니다. 계속된 열띤 토론과 의견공유, 논의과정을 재차 반복하여 <당신이 오랫동안 악몽을 들여다보면>과 <죽음들> 2편의 작품 중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이를 집계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죽음들>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품의 예술성과 무대화에 따른 발전가능성, 작품의 대중성 등 다양한 관점과 기준 등을 종합하여 최종 작품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죽음들> 작가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당신이 오랫동안 악몽을 들여다보면> 작품은 시대의 단면을 포착하여 ‘악몽’의 개념을 해석한 시도의 독창성이 높이 평가되었고, 플롯과 사건을 두고 형식 실험을 모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계급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형식과 함께 변형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당선작 <죽음들>은, 죽음에 대한 통찰을 입체화 서사화한 작가의식이 돋보였고, 추상적인 ‘죽음’이라는 소재가 자칫 상투적일 수 있음에도, 그것을 ‘수학자들의 대중강연’ 등의 기제를 활용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시도와 세련미, 그리고 디테일한 대사들이 갖는 섬세함과 깊이, 삶과 죽음에 대한 통과의례를 색다른 상상력으로 펼치며, 죽음을 통한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상황의 무게감이 짓눌려 고뇌하는 인간의 심리를 설득력 있게 부각한 작품으로, 인물들의 성격이 살아있음에 심사과정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이, 다가오는 5월초, 공연되는 것을 목표로 이번 <2023년 창작희곡 공모전>을 준비하고 진행했다고 하니, 최종 당선작인 <죽음들> 작품이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형상화 될 공연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극의 꽃과 씨앗을 널리 펼치도록 창작의 고통을 온몸으로 마주하시는 극작가님들과 지금도 어느 공연장에서 제작과 연습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쏟아내고 있을 수많은 배우님들이며, 제작진 분들과 현장 스텝진 여러분들, 그리고 기획자님들이 지치지 않으며 좋은 작품의 탄생을 위해, 힘차게 함께 가기를 희망하여 봅니다.

심사위원 일동